

보도시점 4. 7.(화) 조간 <4. 6.(월) 12:00>

2025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

- 1인 창조기업수는 116만개로 전년 대비 15.4% 증가,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.3% 증가하는 등 긍정적 흐름세
- 평균 창업 준비기간은 1년 이상(13.1개월)으로 창업 준비기간 증가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한성숙, 이하 중기부)는 31일(화) 「2025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」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.

'25년 실태조사 결과 1인 창조기업은 전년대비 15.4% 증가하였으며, 업종은 전자상거래업(27.9%) 비중이 가장 높고 수도권 비중이 전체 57.5%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액(266.4백만원), 당기순이익(36.2백만원) 모두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·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(부동산업 등 제외*)를 의미한다.

* 제외업종(1인창조기업법 시행령 별표1) : 부동산업, 도·소매업, 숙박업, 음식점·주점업, 광업, 수도업, 운수업, 금융·보험업 등 32개 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)

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는 매년 조사·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(제14201호)로, 국가데이터처의 '23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(SBR)에 등록된 사업체 중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상 중분류 43개 업종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일반현황과 5,000개의 1인 창조기업 표본 설문조사를 활용한 특성 현황을 발표한다.

*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근거

< 2025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개요 >

- ◇ (조사대상) '23년 기준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상 중분류 43개 업종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
- ◇ (유효 표본 수) 5,000개 사업체
- ◇ (조사내용) 4개 부문 67개 항목('기업 일반현황' 11개, '1인 창조기업 창업현황' 24개, '기업운영현황' 23개, '지원정책' 9개) 설문조사
- ◇ (표본오차) 95% 신뢰수준에서 허용오차 ±1.38%
- ◇ (조사방법) 방문 면접조사(이메일, 팩스, 인터넷 조사 병행)
- ◇ (조사기간) 2025년 8월 ~ 10월
- * 퍼센트 수치는 소숫점 첫째자리까지 반올림한 결과

< 1인 창조기업 일반현황 >

'23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는 총 1,162,529개로 '22년 1,007,769개 대비 크게 증가(15.4%)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

< 연도별 1인 창조기업 및 전체 창업기업 수 > (단위 : 만개)

구분	'23년 실태조사 ('21년 기업통계등록부)	'24년 실태조사 ('22년 기업통계등록부)	'25년 실태조사 ('23년 기업통계등록부)
전체 창업기업 수 (1인 창조기업 수/비중)	454.9 (98.7/21.7%)	482.9 (100.7/20.9%)	490.2 (116.3/23.7%)

업종별 1인 창조기업 비중은 '전자상거래업'(27.9%), '제조업'(21.2%), '교육서비스업'(17.1%) 순으로 나타났다. (3개 업종 비중 : 66.2%)

< 업종별 1인 창조기업 비중 >

구분	전자상거래	제조	교육서비스	전문·과학기술서비스	출판·정보통신 등 서비스	사업시설 관리 등 서비스	개인·소비용품 수리	창작·예술·여가 서비스	농림어업	기타 금융·지원 서비스	계
비중(%)	27.9	21.2	17.1	11.1	7.1	6.3	6.0	2.4	0.7	0.2	100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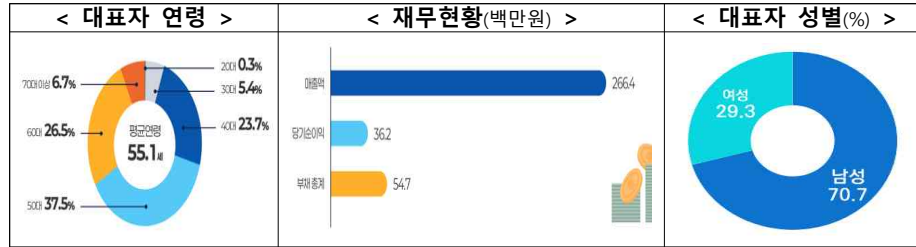
지역별 1인 창조기업 비중은 경기 29.4%(34.2만개), 서울 22.5%(26.2만개), 부산 6.0%(7만개), 경남 5.6%(6.5만개), 인천 5.5%(6.4만개) 순으로 나타났으며, 수도권이 57.5%(66.8만개), 비수도권이 42.5%(49.4만개)를 차지하였다.

< 지역별 1인 창조기업 비중 >

구분	수도권		비수도권														계	
	경기	서울	인천	부산	경남	대구	경북	충남	전북	전남	광주	대전	충북	강원	울산	제주		세종
비중(%)	29.4	22.5	5.5	6.0	5.6	4.5	4.2	3.5	2.7	2.7	2.4	2.6	2.5	2.3	1.7	1.2	0.7	100.0

< 1인 창조기업 특성현황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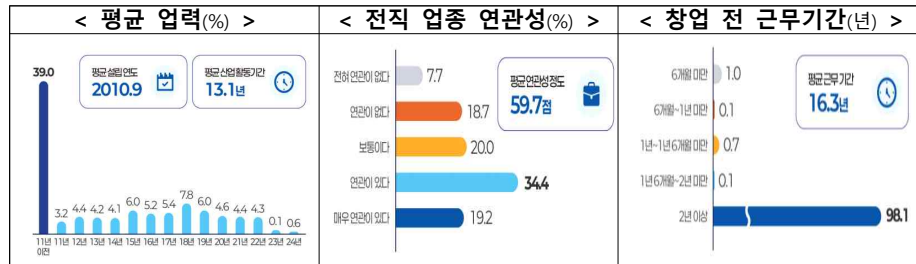
대표자 연령은 평균 55.1세, 성별은 남성 70.7%, 여성 29.3%로 조사되었으며,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66.4백만원, 당기순이익은 36.2백만원으로 나타났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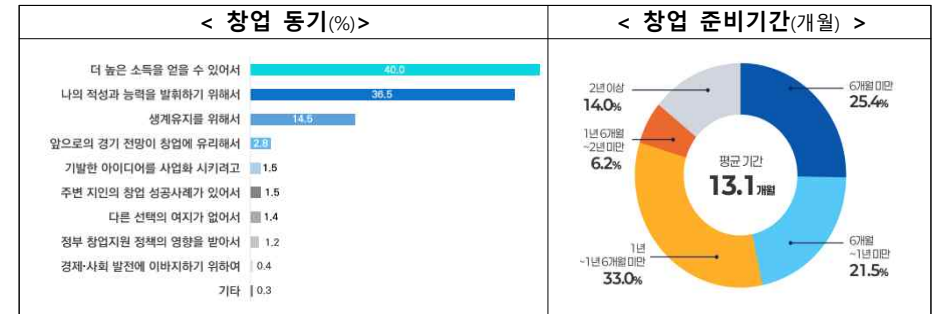
기업형태는 법인기업(14.2%)보다 개인사업체(85.8%)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 주요 거래처로는 '개인 소비자(B to C)'가 78.0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, '기업체(B to B)' 19.1%, '정부·공공기관(B to G)' 2.4% 순으로 나타났다.



평균 업력은 약 13.1년으로 '11년 이전에 설립된 기업이 39%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전직 업종과의 연관성은 59.7점, 창업 전 직장 평균 근무기간은 16.3년으로 나타났다.



1인 창조기업 창업 동기는 '더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'(40.0%), '적성과 능력 발휘'(36.5%), '생계유지를 위해'(14.5%) 순이며, 창업 준비기간은 평균 13.1개월로 조사되었다.



또한, 창업 후 첫 매출 발생기간은 평균 2.6개월, 손익분기점 도달기간은 평균 29.8개월로 나타났다.



◇ '1인 창조기업 특성현황' 통계 수치는 모두 2023년 기준으로 선정된 유효 표본 5,0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조사결과입니다.

※ 「2025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」 결과보고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(<http://www.mss.go.kr>) 또는 창업진흥원 누리집 (<http://www.kised.or.kr>)에서 내려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

담당 기관	중소벤처기업부	책임자	과 장	남정렬 (044-204-7600)
	창업정책관	담당자	사무관	신광현 (044-204-7664)
	창업생태계과		주무관	김동현 (044-204-7667)
	창업진흥원	책임자	실 장	조영수 (044-204-1800)
지역전략실	담당자	과 장	정미진 (044-204-1923)	